

목포 학부모 추석 '재량 휴업' 스트레스

유치원·초등학교 "가족간 유대강화" 1~2일 휴업 학부모들 "자녀 맡길 곳 없어 집에 방치" 속앓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목포 시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대부분이 '재량휴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맞벌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추석 연휴 전날인 12일과 연휴 다음날인 16일 중 하루를 쉬거나 이를 모두 휴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교육청 관계자는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맞아 가족간 정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교가 재량 휴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맞벌이 학부모들은 "단기방학에 맞춰 휴가를 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 집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며 부

정적인 입장이다.

◇맞벌이 학부모의 고민=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 박모(39) 씨는 이틀간 재량휴업과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직장에서는 3일만 쉬는데 아이는 이틀을 더 쉬게 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평소 방과후 수업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묻는 통신문을 보내는데 재량휴업은 학부모 의견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며 "아이가 선생님 눈밖에 날까 봐 할 수도 없다. 정말 누구를 위한 휴업인지 매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맞벌이를 하는 우모(31) 씨 역시 추석 기간에 유

치원이 재량휴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섰다.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데 아이의 재량휴업을 이유로 또 휴가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름만 바뀐 단기방학=교육과 학부모와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5월 '단기방학'과 관련해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폐지하고 대신 학교장 재량의 휴업일로 대체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재량 휴업일 역시 이름만 바뀐 단기방학이라는 지적이다.

학부모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선 학교장에겐 책임만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재량 휴업과 관련해 학부모 의사를 직접 묻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가족간 유대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족과 함께 보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량 휴업일은 교장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현황과 약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원도심 지중화사업 내달 착공
목포시와 한국전력이 38억9천만원을 들여 목포역 LG 빌딩~신안군청~북교초등학교 간 수문로 0.9km와 창평 우체국~오거리 간 젊음의 거리 0.4km 등 원도심 지역 1.3km를 지중화한다. 지중화 공사는 다음달 착공되며 목포시는 사업비의 50%인 19억4천만원을 부담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갯바위 문화거리에 '도슨트' 배치

목포시 11월 6일까지 매주 2회 30명씩 교육

목포 갯바위 문화거리에 '도슨트'(docent)가 배치된다.

목포시는 갯바위 문화시설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갯바위 거리 도슨트 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 공모에 채택된 사업으로 목포시에서는 처음 실시한다.

'도슨트'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전

시의 작품을 설명해주는 전문 안내인이다.

목포시는 1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해 오는 11월 6일까지 매주 2회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학관 등 4개 시설에서 각 30명씩 무료 교육한다.

교육을 수료한 도슨트는 평생학습 관련 작품홍보와 축제 등의 행사 및 전시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문의(061-270-3358)
/목포=임영춘기자 lyc@

신안군 '농촌활력증진사업' 대통령 표창

신안군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촌활력증진 계획 평가 결과 전국 70개 시·군 중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9억원을 받았다.

신안군은 제 2기 신활력 사업(2008~2010년) 일환으로 '천사의 섬 천일염 세계 명품화 전략사

업' 및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들 사업에 각각 108억9천만원과 70억2천700만원을 투입, 신안 천일염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송아지 브랜드 조성과 친환경 마늘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결핵병원 최첨단 '격리 병동' 완공

결핵균으로부터 완벽한 격리와 안전한 치료가 가능한 격리병동이 목포에 준공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립목포병원(원장 공석준)은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최근 국가 지정 격리병동을 준공하고 10일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격리병동은 국민건강증진기금 23억4천여만원이 투입돼 14개 병실 50병상(음압격리 10병상, 일반 격리 40병상)으로 환자모니터링시스템, 중

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음압유지 격리병실은 병실 내 압력을 복도보다 낮게 유지해 병실 내 공기기가 복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 뒤 밀봉해 배출하는 시설이다.

국립목포병원은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결핵치료 전문의료기관으로 1960년대에 설립된 후 1983년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개편되면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됐으며 2002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한가위 도서 여객선 운항 증선·증회

목포 향민청, 귀성객 13만여명 추산 12~16일까지 예비선박 투입 등 만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남해 주요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증선·증회된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올 추석 연휴가 평년보다 짧아 많은 귀성객들이 일시에 물리는 시간대와 기항지에 예비선박 4척을 증선할 계획이다.

운항횟수도 2천800여 회로 평상시보다 450회 늘어난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서남해 항로를 이용할 귀성객은 전년도와 비슷한 13만여명으로 예상된다.

또 차량 수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3만5천여대로 추산하고 있다.

목포항만청은 안전하고 원활한 귀성을 위해 추석연휴 특별수송 근무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귀성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항로의 여객선 운항

시간 사전 안내와 승선권 인터넷 예약·예매 및 왕복 승선권의 발권 필요성 등의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도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을 '안전하고 평온한 해상치안 확보를 위한 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목포와 완도, 태안, 군산해양경찰서에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서해해경청은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 등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50여개 여객선 항로에도 경비정을 띄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이상휴기자 ish@

신안서 아열대성 조류 '검은이마직박구리' 발견

기후변화에 따라 아열대성 조류 번식지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군과 국립공원 철새연구센터는 "아열대성 조류인 '검은이마 직박구리'〈사진〉 어미 4마리와 새끼 9마리를 흑산면 가거도에서 관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장도에서 검은이마

직박구리 국내 최초 번식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두 번째로 2쌍 이상이 가거도에서 번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검은이마 직박구리는 중국 남부, 대만, 베트남 북부지역에만 분포하는 아열대성 조류"라며 "국내에서 번식이 확인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성 조류 중 일부 종들의 번식지역이 북상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취재본부 (061) 908-8111	목포 (061) 276-9200	나주시 (061) 332-5544
여수 (061) 653-8444	강진 (061) 434-6830	나주군 (061) 332-7764
광양 (061) 792-8111	무안 (061) 452-8835	담양 (061) 383-8111
순천 (061) 746-8111	신안 (061) 243-3758	영암 (061) 473-2340
고흥 (061) 842-2121	영도 (061) 554-6677	장성 (061) 392-2100
구례 (061) 783-8111	영광 (061) 351-0055	장흥 (061) 863-8822
곡성 (061) 362-8111	진도 (061) 543-0100	화순 (061) 374-4423
보성 (061) 853-1190	함평 (061) 324-8111	광산 (062) 944-0444
	해남 (061) 534-5151	

직원 징발부동산의 매각 공고

본 공고는 직원 징발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것으로, 매각 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가격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각 공고문 참조하십시오.

매각 신청 방법: 본 공고에 기재된 대로 신청하십시오.

문의처: 직원 징발부동산 매각 담당부서